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이해

Calvin's Understanding of Romans 7

번역:김 성 욱
(역사신학)

Ⅰ. 로마서 7장에 대한 주석
Ⅱ. 교부들과 어거스틴의 로마서7장에 대한 설명
Ⅲ. 칼빈의 로마서7장 주석
Ⅳ. 로마서7장과 성도의 성화
Ⅴ. 로마서7장에 대한 현대적 선포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의 성경주석"에 관한 두 번째 강의주제로서 칼빈의 로마서7장 주석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로마서 7장 주석은 칼빈이 어떻게 잘못 출발하였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화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잘 유지한 한 예가 된다.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또한 비평적으로도 판단해야만 한다. 이 원리는 훌륭한 성경 주석가인 칼빈에게도 해당된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사실 로마서7장은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한번 다룬바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가 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것은 칼빈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를 잘 이해하려는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자와 교회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 로마서7장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본 논고에서 "로마서 7장"이란 표현은 로마서 7장 15,17,18,19절을 의미한다. 루터의 번역을 보면 15절: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는 행한다."

17절: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그리고 18,19절: "나는 내 안 곧 나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확실히 있으나, 그 선한 것을 나는 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한 것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전에도 분명히 숙고하였을 것이다.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기록된 곳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Ⅰ. 로마서7장에 대한 주석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부차적인 것들은 그냥 두게 될 것이다. 로마서7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 1-6절.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높이 평가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어서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유대인)에 대한 답변을 6절에서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얽어 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 7-12절 유대인들의 반박: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가?(7절) 이에 대한 대답은 11,12절에 있다: 내 속의 죄가 잘못이다: 율법은 선하다.

3. 13-20 (주제 부분): 유대인에 대한 두 번째의 반박: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유발하는가?(13절a) 이에 대한 대답은 20절에 있다: 죽음은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온다.

4. 21-24. 요약: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의 법"(21,23절)은 죄로 말미암아 악용되는 22절의 '하나님의 율법'과 대립된다. (이어지는 개념들인 "마음의 법"이나 "다른 법" 등에 관하여서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다). 22절에 나타나는 옛사람과 대비되는 "속사람"이란 개념과 함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래서 죄는 나를 곤곤한 자로 만든다.(비교 롬8:2).

24과 25절 사이에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급격한 변화가 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로마서8장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로마서7장은 율법이 죄를 폭로하는 것을 말하고, 8장은 성령께서 해방시켜서 새 삶을 주신다고 가르친다.

잠정적결론 : 만약 로마서7장의 끝부분에 격변(激變)이 있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7:1-24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서8장은 은혜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15,17,18,19절은 신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연구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들"은 로마서7장이 회심 전의 바울을 가르킨다고 본다.[1)]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문에서

---

1) U.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Teil 2 Römer 6-11, Neukirchen^{2} 1987, S.93 (EKK VI/2)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나"라는 형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명하다. 위에 언급된 주석을 따르자면, 바울이 자신의 현재적인 믿음이나 그 믿음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 아래 있던 예전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약주석가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비록 그가 "나"라는 형태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전체 인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기의 "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나"인 것이다. 이런 주석은 현저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로마서7장에서 "율법"은 십계명이나 구약의 다른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율법이란 로마서 2:15절에 기록된 "그들의 마음에 새긴" 바로 그 율법을 의미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유대인 뿐만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로마서의 기본 입장에 일치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와 동일하게 헬라인에게로다"(롬1:16).

또 하나의 다른 숙고가 나로 하여금 이방인과 연관시켜 생각하게 만든다. 18,19절에서는 "선"에 대하여서는 세 번 언급하고 "악"에 대하여는 한 번만 말한다. 만약 바울사도가 십계명만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과연 이런 일반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였겠는가? 십계명은 "선"을 포함하지도 않고 계명을 어기는 것도 "악"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간을 가리키며,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바울(로마서)의 수신자이다.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II. 교부들과 어거스틴의 로마서7장에 대한 설명

이 중간 단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칼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것이 필수적인가? 초대교회에서 로마서7장의 주석에 관하여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키는 변화가 있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었다. 어거스틴까지의 초대교회에서는 교부들에게는 로마서7장이 유대인, 곧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의 유효성을 옹호하는 유대인을 언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이 입장을 따랐다. 그런 와중에 펠라기안들이 등장하여 구원에 있어서 자유 의지의 협력을 가르쳤던 것이다. 409년에 펠라기우스의 주석이 나오게 되자, 412년부터 어거스틴은 로마서7장을 신자에 해당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후에 그는 자신의 글의 축소판에서 그의 초기의 견해를 단호하게 취소하면서, 그것이 이단적이었다고 말한다.[2]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펠라기우스와 그의 해석자는 바울의 글 속에 있는 의지에 관한 많은 언급들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적용하였다. 바울은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15)", "**원함은** 내게 있으나(18)",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한다(21)"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로마서7:21에서 "인간이 필연성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죄인이 되었다"[3]라고 해석하였다. 바울이 의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이 의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였지만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냉혹하게 반대하였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작용하는 것 즉 영원한 구원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롬7:13-24 부분에 대한 주석 작업에서 성령의 역사에 관한 제한성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회심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듭난 자도 전적인 죄인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내적인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2) 비교 K. H. Schelke, Paulus Lehrer der Väter. Die altkirchliche Auslegung von Römer 1-11, Düsseldorf 1956, S.248; Wilckens, a.a.O., S.104.

3) Schelke, a.a.O., S.251.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탐심(concupiscentia)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가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제한하였다. 탐심에 관하여 바울은 롬7:7,8에서 십계명 중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너희는 탐내지 말라. ..... 등"을 지적한다. 탐심은 신자의 타락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분명히 탐심은 로마서 7:15,18,19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바울은 회심전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 곧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죄에 관한 언급으로 보았다.

칼빈은 로마서 7장에 대한 주석에서 어거스틴의 견해가 바뀐 것을 알았으며, 그것을 자신의 로마서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다. 15절에서 칼빈이 기록하기를 "어거스틴은 어느 기간 동안 이러한 모순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자세히 연구한 후에, 그가 잘못 가르쳤던 것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 이 부분을 오직 거듭난 사람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확고한 근거들로 입증하였다." 칼빈도 어거스틴에 동의한다.[4] 그래서 칼빈은 거듭난 자를 가리킨다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수용한다.

III. 칼빈의 로마서7장 주석

칼빈의 독특한 견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터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루터도 역시 어거스틴의 후기 견해를 따라 로마서 7장이 중생자의 삶을 묘사한다고 보았다. 중생자는 육신과 영의 지속적인 전쟁 속에 서있다.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4) T.H.L. Parker (Ed.), Iohannis Calvini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 Genève 1999; Ioannis Calvini opera omnia, series II (zit. COR) XIII,145, Z.22-27: In communi errore aliquandiu versatus est Augustinus. Verum loco proprius excusso, non tantum retractavit quod male docuerat, sed ... multis validis rationibus contendit, non aliter quam de renatis posse exponi. Et nos operam dabimus, ut ita esse lectores perspicue agnoscant.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러나 어거스틴이 가르치듯이, 신자 속에 육신과 영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루터에게는 신자란 **전적**으로 육신적이며 **전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이다. 롬7:25절에서 루터는 "보라 한 인간 즉 동일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동시에** 죄의 법을 따른다. 곧 그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 즉 앞에서 내가 언급한 것은,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그들이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의 의가 그들을 덮으며 그들에게 더해진다. 반면에 그들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탐심 없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마치 의사의 간호 속에 있는 환자 같아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병자인 죄인이다."[5]

루터의 역설적인 표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루터가 신자들이 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한다.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이란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simul pecator)"이라는 구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루터도 개인이 점차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견해를 알았고, 그러한 개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신을 점점 더 이기며 그것을 속박한다 (partim iusti, non toti: 부분적으로 의로우나 전체는 아님)."[6] 그러나 칼빈은 칭의가 완성되었으나 성화는 단지 시작하여 진행 중이라는 자신의 견해 때문에 이 partim iusti(부분적인 의로움)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7]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5) Vide, ut unus et idem homo simul servit legi Dei et legi peccati, simul Iustus est et peccat! [...] Vide nunc, quod supra dixi, Quod simul Sancti, dum sunt Iusti, sunt peccatores. Iusti, quia credunt in Christum, cuius Iustitia eos tegit et eis imputatur, peccatores autem, quia non implent legem, non sunt sine concupiscentia. Sed sicut egrotantes sub cura medici, qui sunt re vera egroti." Römerbriefvorlesung 1515/16, WA 56, 347.

6) Wilckens, a.a.O., S.109

7) 로마서 3,25: non iustificari homines quia re ipsa tales sint, sed inputatione. COR XIII,73,Z.25f. 로마서 7,15: Pii contra, inquibus coepta est Dei regeneratio COR XIII,145,Z.1. Regeneratio enim inchoatur tantum in hac vita. Z.11f.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은 어떻게 로Wilckens, a.a.O., S.109마서7장을 주석하고 있는가? 그는 로마서7장이 회심자를 가르킨다는 어거스틴과 루터의 견해를 따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분한다. 그 근거는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펠라기우스주의와 카톨릭의 선행주의에 대하여 냉혹하게 거절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롬7:15에서 기록하기를 "소피스트들이 자유의지를 말하고 본성의 힘을 강조하려할 때,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근거로 내세운다."[8] 따라서 그 반대자들은 칼빈을 어거스틴과 루터와 같은 부류로 여긴다. 칼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는 주석을 거절한다. 그의 주석에 따르면, 그 유대인들은 신적인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항상 바른 이해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그를 "지나쳐 갔다(넘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독특한 점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칼빈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넘었선 것이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simul pecator)"이라는 루터의 상투어를 칼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그는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가르친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더 새로워진다. 그가 비록 성도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그의 관용어는 "언제나 점점 더(magis et magis)"인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곧 "성화의 신학자"이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로마서7장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칼빈의 로마서7장 주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바울은 로마서7장에서 인간이 깊은 무능력에 빠진 것을 보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칼빈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중생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체"라는 개념 때문에 칼빈이 (중생자를 의미한다는)견해를 견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8) Ita Sophistae, quum liberum arbitrium definire volunt, vel aestimare, quid valeat naturae facultas. in hunc locum insistunt." COR XIII.145. Z.19-20.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지하지 못한다. 14b절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본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모태에서부터"[9]란 말에만 유효하기에 결국 불신자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에 의해 구속받은 자이다. 육신이란 단어가 18a절에서 다시금 나타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칼빈은 다시금 회심전의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10] 그래서 칼빈은 18b절을 참작하여 하나의 수정안을 제시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칼빈은 이 문장에서 "행한다"는 것을 "실행한다"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완수한다 (perficere)"는 것으로 번역한다. 그의 번역의 내용은 비록 선한 시작이 만들어졌으나,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중생자에게 어느 정도 선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중생자가 그것을 끝낸 것은 아직 아니다. "완수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칼빈은 18절을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이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에 대한 그의 주석은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서 칼빈은 "나"와 "죄"를 구분함으로써 그 문장을 약화시킨다: "바울은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의지가 육신의 경향으로부터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 그(바울)가 여기서 주장하기를, 죄가 그를 **완전히 채우는 것은 아니다.**"[11] 이에 반하여 바울 자신은 여기서 사람 속의 자아가 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여긴다.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9) Natura [...] servus est peccati homo. COR XIII,143, Z.34. sub carne comprehendi quicquid afferunt homines ex utero. Z.19.

10) Dicit nullum in se bonum habitare, quantum ad naturam. COR XIII,147,Z.13f.

11) sed est testificatio quam longe dissentiat a sua carne, spirituali. Atqui Paulus hic negat totum a peccato occupari. COR XIII,146,Z.36f. 과 147,Z.3f. (본인에 의한 강조)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래서 마침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속하랴(한글번역: '건져내랴')?"[12] 이에 대하여 칼빈은 중생자들이란 이미 구속받았기에, 여기에 나타나는 "구속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되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누가 나를 "뽑아내랴(eripere)"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구속적 인도를 언제나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신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칼빈은 성경에 대한 하나의 수정안을 만들고야 만다.

확정된 **결론**: 서구적인 전통에 서있는 칼빈은 로마서7장을 중생자에게 적용시키려 한다.
1. 육신과 육체적 것을 신자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칼빈은 인정해야 한다(14, 18절).
2. "행하지 않는다"를 "완수하지 못한다"(18b)로 칼빈은 번역한다: 이것은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니다.
3.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칼빈은 "뽑아내다"(24절)라는 단어로 고친다 – 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작업인가!

IV. 로마서7장과 성도의 성화

칼빈은 그러나 신자의 성화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신자란 언제나 선한 결실도 맺어야 한다고 그는 확신한다. 바울과는 반대로 성화를 이 텍스트에 끌어들인다면, 칼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따라서 그의 주석을 다시금 샅샅이 살펴보자.

15절 전체에 대하여 칼빈이 기록하기를: "무신론자와 경건한 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 자기 자신의 양심의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을 .....

12) 칼빈은 자신의 로마서주석 1, 2판에서 여전히 "liberabit(자유롭게하다)"으로 번역하였다. COR XIII,149,Z.32.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정도로 소경은 아니지만 감각이 굳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내적 존재의 실제적인 반대 없이 죄에게 종노릇 한다. ..... 이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경건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하늘의 공의를 찾고 죄를 미워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들(경건한 자)은 육체적 존재의 찌꺼기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다시 끌려온다 ..... 그 새롭게 됨은 이 세상 삶에서는 오직 처음에만 생기고 육체의 찌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기타 등등)[13] 중생자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있기는 하되)오직 "죄의 찌꺼기"만 있다는 것은 강조할만하다.

15절에 대하여 칼빈이 설명하기를 "바울이 말하되, 율법이 원하는 것을 그가 하지 않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것을 시도하는 가운데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많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살아서 활동하는 성도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다."[14]

17절에 대하여 "바울은 그가 죄에 전적으로 사로 잡혀 있는 것을 부인한다. 곧 죄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말로 만약에 그가 말한다면, 그의 마음 속에 단지 한 부분에 아직도 죄가 있다 라는

---

13) Hoc itaque inter eos ac fideles est discrimen, quod illi numquam ita excaecati sunt et indurati animis, quin ... proprio conscientiae iudicio illa (sc. facinora) damnent. ... Nihilominus toto ex corde peccatum illis placet; ideoque in ipsum incumbunt sine vera affectus repugnantia. ... Pii contra, in quibus coepta est Dei regeneratio, sic divisi sunt, ut praecipio cordis desiderio ad Deum suspirent, caelestem iustitiam expetant, peccatum oderint; sed rursum canis suae reliquiis in terram retrahantur. ... Regeneratio enim inchoatur tantum in hac vita. Residuum carnis quod manet (etc.). COR XIII,144,Z.32-145,Z.12. (본인에 의한 생략과 강조)

14) Itaque negat (Paulus) se facere quod Lex exigit, quia non praestat omnibus numeris, sed quodammodo fatiscit in suo conatu. ... Paulum hic de fidelibus disserere, in quibus viget aliqua Spiritus gratia. COR XIII,146,Z.6 und 20f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것이다."[15] 이 주해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18b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선을 완수하는 것이 없다"는 표현은 "육신의 찌거기와 성령의 은혜로운 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나뉘어진 신자"[16]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결론: 칼빈의 입장에서도 로마서 7장은 중생자에게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성화의 교리를 끌어들인다.

그 근거는 1. 죄란 단지 "죄의 찌거기"를 의미하고, 2. 중생된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3.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자신의 성화의 신학을 굳게 믿는다, 비록 로마서7장의 텍스트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Martin Bucer와 Wolfgang Musculus 그리고 후의 경건주의자들은 로마서 7장이 중생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어거스틴이나 루터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중생자로 인정하였다.[17] 칼빈은 로마서7장을 근본적으로 중생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설명들을 제외한다. 로마서 7장의 전투를 믿음의 새로운 행동들로 적는 것이나 혹은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칼빈은 바울적 "이미"와 "아직", 곧 믿음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란 의미로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15) Atqui Paulus hic se negat totum a peccato occupari, imo ab eius servitute se eximit; acsi diceret, in aliqua tantum animae suae parte residere peccatum. COR XIII,147,Z.3-5.

16) (fidelis), qui propter carnis reliquias et Spiritus gratiam in seipso divisus est. COR XIII,Z.19f.

17) W.G. Kümmel, *Römer 7 und das Bild des Menschen im Neuen Testament.* Zwei Studien, München 1974, S.88 (Theologische Bücherei, NT Bd. 53).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성화는 언제나 단지 시작된 것이고, 자라나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칼빈의 입장에서는 로마서 7장이 중생자라고 기술하는데, 이 중생자는 불신자 곧 육체적인 성향에서 신자로의 변화 중에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미 언급한 로마서 7장의 두 가지 가능한 견해 사이에 있다.(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양자의 의견을 통합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중간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이라고 번역함)

V. 로마서7장에 대한 현대적 선포

오늘날 우리는 칼빈의 주석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의 입장에는 동의해야 할 것이다. 롬7:1-24은 인간이 죄의 종 곧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롬7:24과 25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따라서 말해야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에서야 비로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칼빈의 입장인 성도의 성화가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다시금 로마서7장을 보자. 매일의 경험으로 통하여 보면 루터의 성도에 대한 진술이 정당치 않은가?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아닌가? 바울은 이를 부정한다. 우리는 명백하게 죄 가운데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죄가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죄인"이란 말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로마서5장의 끝부분부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21) 6:18절 "왜냐하면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므로 의에게 종이 되어라"(한글성경: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까지 몇 절만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읽어보자. 죄는 여기에서 인격화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인이라 불리겠는가? 여기서 경험은 성령과 생명의 약속에 대립하여 성령 밖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마 루터의 관용구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할 것이다: simul iustus, simul tentstus – 의로우면서 동시에 (아직은) 불안한 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불안한 자들이고 또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한 의도에서 칼빈은 루터의 신학적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에 바울과 함께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